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작

익산시, 올해 1분기·오후 4시 이전 신청... 당일 입금

익산시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이행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신속한 손실보상에 나선다.

시는 중소기업업무에서 영업시간·시설인원 제한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기업 업체에 대한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을 지난 30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손실보상은 지난해 4분기 매출감소분에 대한 보정율이 90%에서 100%로 높아지고 분기별 보상 최소금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돼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중기부는 30일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손실보상 대상 업체의 경우 안내문자(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가 발송되며,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지급된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할 수 있으며 오후 4시 이전 신청할 경우, 중기부에서 미리 계산한 손실보상금을 신청 당일 받을 수 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속보상 대상여부를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 선정 지급 예정이며,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대상업체 및 손실보상 선지급 받은 업체는 2021년 4분기 보상금 신청 후 정산결과가 확정되면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은 이달 9일까지 5부제로 진행되고, 현장접수는 11일부터 22일까지 휴학제로 익산시 임시청사(팔봉공설운동장) 내 소상공인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학생들이 캠퍼스 인근에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된 습을 발견해 관련 기관에 발견내용을 신고했다.

“서식처 보전 위한 아이디어를”

군산대, 캠퍼스 인근서 멸종위기2급 습 발견

군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학생들이 캠퍼스 인근에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된 습을 발견해 관련 기관에 발견내용을 신고했다.

생명과학과 학생들은 1학기 전공수업인 보전생물학 수업 실습 중 도시 주변 자연생태계의 서식처 연결성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한 야생동물관찰 카메라에 습 고라니, 멧돼지, 너구리 외 여러 야생동물이 촬영된 것을 확인했다.

이번 학기 수업을 담당한 생명과학과 김지윤 교수(식물생태학·생물다양성정보학 연구실)는 “군산대학교 캠퍼스 주변에 조각난 채로 남아있는 숲과 습지생태계가 아직 지역 생물들에게 중요한 서식처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학생들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도 매일 수업을 듣고 무심히 지나가던 곳에서 다양한 야생생물을 확인한 것에 놀라며 흥미를 보였고, 캠퍼스 주변 서식처를 보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국립군산대학교 캠퍼스와 인근 지역에는 크고 작은 저수지와 산림,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어 도시 내에서 다양한 생물이 관찰된 곳이며 마한시대 고분군 등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문화유산도 많이 남아있어 생태와 역사적 가치를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다.

해당 멸종위기종 발견정보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야생생물통합센터에 제보하여 관련 기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익산시,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 지원 ‘확대’

‘자산형성 지원통장지원사업’

익산시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자산형성 지원통장지원사업’을 통합·개편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청년들의 근로활동을 유도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되며 선정된 대상에게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지원된다.

지원 확대에 따라 운영되는 통장은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 희망저축계좌Ⅱ(차상위),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초과) 등 3가지이다.

우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서 100% 이하까지 확대돼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모집’과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모집’으로 나눠 진행된다.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기존에 차상위 계층 청년이거나 소득재산조사 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 가입 가능하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근로활동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3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활동 중이고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10만 원 추가 적립

돼 3년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대상은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로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생계·의료급여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만기 시 1천44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희망저축계좌Ⅱ’은 차상위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3년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모집기한은 ‘희망저축계좌Ⅰ’은 7월 1일부터 19일, ‘희망저축계좌Ⅱ’은 7월 1일부터 18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이며 각 기간 동안 5부제로 운영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평화지구 LH아파트 800만원대 분양

익산시가 추진 중인 평화지구 LH 아파트의 분양가가 800만원대로 결정되면서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33㎡ 당 평균 분양가 870만원대로 결정된 평화지구 LH 아파트를 7월 14일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한다.

사업시행자인 LH는 지난 23일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원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모집을 공고했으며, 7월 14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고한다.

공고 후 7월 말 청약자를 접수받아 8월 초 당첨자를 발표하고 서류 접수 및 자격 검증을 거쳐 10월 중 계약을 체결한다.

평화지구 LH 아파트는 분양 1,094세대(전용면적 84㎡), 임대 288세대(전용면적 39㎡, 59㎡) 등 총 1,382세대 규모로 건립되며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특히 분양되는 1,094세대 중 600세대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될 계획이어서



인구 유출의 주원인이었던 젊은 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시는 적절한 분양가 책정을 위해 정지권과 함께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800만원대 분양가를 이끌어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달빛산책 야간 포토 이벤트 실시

군산시는 이번 주말부터 시간 여행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달빛 산책 야간포토 이벤트를 시작한다.

시는 지난 8월 게스트하우스 마을가업인 판빌리지 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17일부터 28일까지 시범 기간을 가진 다음, 이번 주말부터 달빛산책 야간포토 이벤트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저녁이 되면 적막해지는 시간 여행마을의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이벤트는 달빛마을, 신흥동도시숲공원, 해방골, 초원사진관, 인문학향고 정담, 군산근대건축관, 군산법무드림, 비어포트 등 원도심 곳곳 숲은 야간명소 및 밤에 더 빛나는 관광명소 8곳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SNS를 소유한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근 기자

익산시민대상, 7월1일~8월 26일 후보자 접수

익산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시민들을 적극 발굴한다.

시는 7월 26일까지 익산시 최고 권위의 상인 제27회 익산시민대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추천 대상은 후보자 추천일 기준으로 등록기준지가 익산시거나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한 시민으로 선발 부문은 △문화체육 △산업 △사회봉사 △여행 △친환경 △농업 △교육 등 모두 7개 부문이다.

후보자는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기업체장, 학교장, 담당관·과(소)장, 읍면동장, 시민(만 19세 이상 시민 30명 이상의 연서 필요) 등이 추천할 수 있으며, 공적조사 등 관련 서류를 익산시청 행정지원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에 열리는 서동추계 폐막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